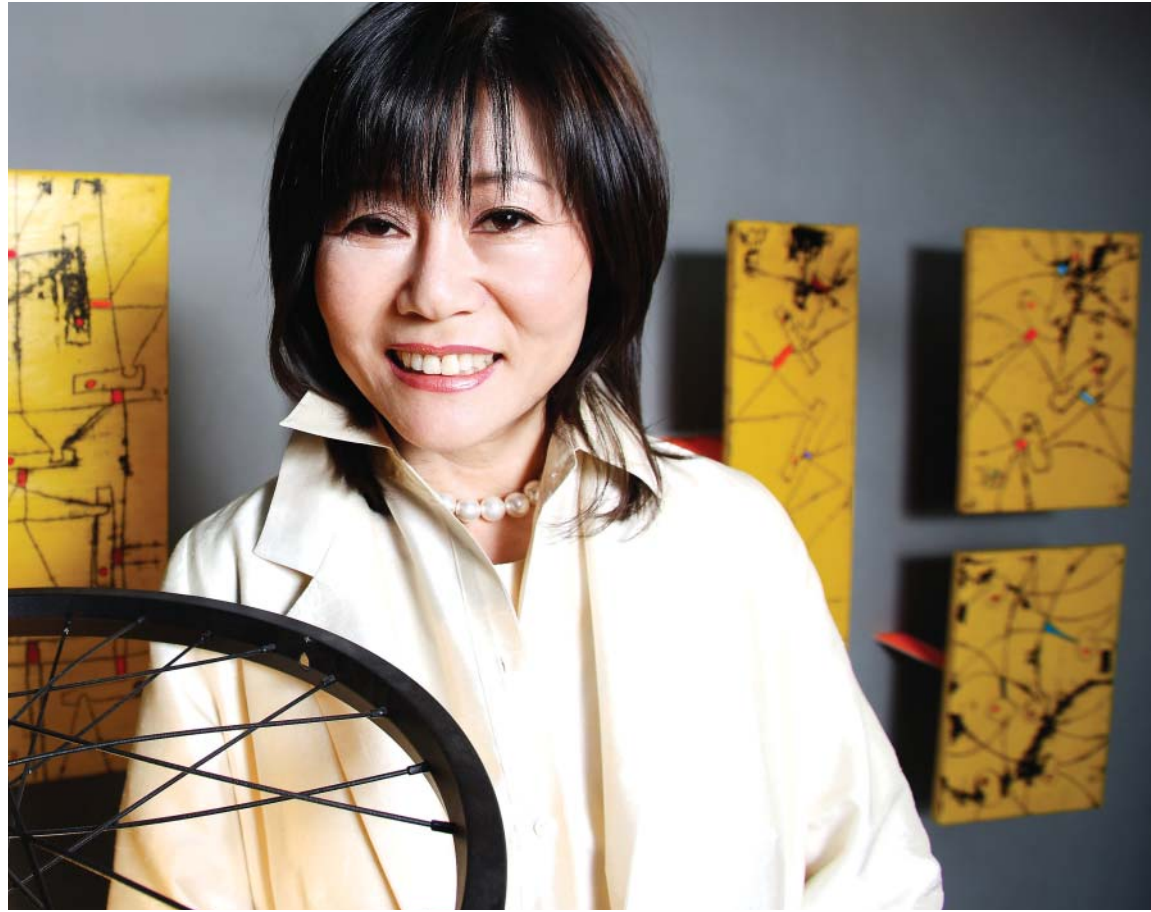


처음 만난 사람에게 건네는 악수. 어떠한 상황에도 'I'm OK'라고 대답하는 낙천적인 성격, 웃지 않는 것이 외려 힘들다는 쾌활함. 그녀의 이러한 점이 낯대 높은 미국 상류사회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파티 리넨 디자이너 영송 마틴(Youngsong Martin)을 서울에서 만났다.

에디터 유소라 사진 이충규 헤어 & 메이크업 강성우, 이은진(3Story by 강성우 549-7767) 장소 협조 3Story by 강성우



파티 리넨 디자이너 영송 마틴 (Youngsong Martin)

# Beautify Party



먼저 영송 마틴 대표가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고백하자면 '파티 리넨 디자이너'라는 명칭은 에디터가 그녀와 합의해 만든 것이다. 미국에서조차 그녀의 직업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없다고 한다. 단순히 '리넨 디자이너'로는 할리우드나 미국 상류사회의 파티나 이벤트에 참여할 자격을 포용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그녀는 미국 파티 문화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신조어(?) '파티 리넨 디자이너'란 파티나 웨딩 리셉션, 이벤트 등의 특별한 행사에 테이블과 의자 등을 꾸미는 리넨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리넨에는 테이블 냅킨, 러너 등 세세한 것까지 포함된다.

LA 파슨스 스쿨에서 강의할 정도로 꽤 성공한 패션 디자이너였던 마틴 대표가 파티의 리넨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6~7년 전에 치른 조카의 결혼식 때문이었다. 당시 그녀는 조카의 결혼식을 특별하고 아름답게 꾸며주고 싶었으나 마음에 드는 리넨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만 해도 파

티에 쓰이는 리넨은 색상은 화려지만 디자인이 유치하거나, 색이 바랜 흰색 천뿐일 정도로 디자인 수준이 낮았던 것. 파티나 이벤트에서 리넨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인식했던 그녀는 자신처럼 종전의 리넨 디자인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리넨 디자인에 도전했다. “파티나 행사장을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파티에 쓰인 컬러예요. 컬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분위기는 파티의 컨셉트를 좌우하죠. 그 컬러를 결정하



는 것이 바로 리넨이에요. 파티에서 플라워나 조명, 음식 등이 액세서리라면 리넨은 옷이라고 할 수 있죠.”

그녀가 디자인한 리넨은 기존의 개념을 탈피한 것들이다. 서로 다른 컬러톤을 과감하게 매치한 다든가 비즈나 퍼 등 옷에 많이 쓰이는 소재를 이용하는 식이다. 그녀의 뛰어난 감각은 ‘와일드 플라워 리넨(Wild flower linens)’을 설립한 지 불과 5년 만에 손꼽히는 리넨 디자인 회사로 성장시켰다. 와일드 플라워 리넨은 아카데미 시상식 파티, HBO 골든 글로브 파티, 엘튼 존 파티, 올리비아 뉴튼 존 파티, 플라시도 도밍고 파티, 에이즈 이벤트 등 할리우드의 굵직한 파티와 이벤트에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파티 시즌인 여름이면 일주일에 크고 작은 행사를 40~50개 맡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많은 행사에 리넨을 렌탈했지만 5년 동안 같은 디자인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그녀는 매번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는 데에 에너지를 쏟는다.

마틴 대표가 리넨을 디자인하기 전,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처음 묻는 것은 파티를 설명하는 형용사다. 클라이언트는 원하는 파티의 이미지를 ‘우아한’ ‘고전적인’ ‘핑키한’ 등의 단어로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영화의 한 장면을 예를 들어 말하기도 한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리넨으로 표현하는 그녀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단 한마디, 손님들이 파티 장소에 들어서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와~!’ 하고 내지르는 탄성이라고. 길게는 1년 가까이 준비한 파티가 단 몇 시간 만에 빛을 발하고 끝날 때면 허무하지 않을까. “파티가 끝나면 물론 허무하고 아쉬워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면 그 파티는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사람들이 훗날 그 파티를 아름답고 멋진 경험이라고 추억한다면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녀의 화려하고 감각적인 리넨 디자인을 조만간 한국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녀의 이번 방문으로 한국 진출을 계획하게 되었기 때문. 그녀의 활동이 아직은 미성숙한 우리의 파티 문화 발전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

